대학원생 세계관A/02/발표논문/

종교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 : 아우구스티누스의『고백록』에 나타난 지식, 믿음, 교육

이정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육철학전공 박사과정)

Ⅰ. 들어가며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한 편으로는 앎 또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과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탐구일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전지전능한 신, 하느님에 대하여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겸양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혹은 각각을 대표하는 '지식'과 '믿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가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위의 물음을 교육적인 차원의 물음으로 볼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위의 물음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적 질문은 우리가 앎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지, 그것은 믿음과 어떠한 관계를 띠는지를 선결문제로 합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책『고백』에서 위 세 성격의 질문을 관통하여 믿음, 지식, 교육의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고백』(Confessines)에 나타난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있는 교육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백』 속에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대답을 머릿속에서만 탐구해서 도출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지적 여정을 일별하고, 그 안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후, 그것이 그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결되었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 중에서도『고백』을 택했는지, 그리고 왜『고백』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적인 차원을 보아야 하는지 또한 드러날 것입니다.

Ⅱ.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1. 철학과의 조우

오늘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유년 시절에 배운 것은 종교나 철학과 거리가 먼 수사학이었습니다. 당시의 수사학은 글의 형식과 운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떻게 문장을 잘 써서 설득과 웅변을 잘할지 따위와 같은 전문기술을 배우는 분야였습니다(Marrou, 1956). 따라서 유년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배운 것은 주로 그리스로마의 유명한 문학작품과 그것에 적용된 문법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수사학은 '억지로 배운 것'이었고(1.12.19.)[1], 수사학을 배우는 시간은 '재앙'이자 '불행'의 시간이었습니다(1.9.14.). 수사학은 당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었고, 로마의 변경인 작은

1) 이 글의 주요 텍스트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인용할 때에는 저자와 책 제목 기술 없이 성염 역의 책과 문단 번호로 표시하였습니다.

소도시에 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한 수단이었지만(Brown, 2000: 35-40, 95-105), 그것은 후에 회고하건대, "인간의 명예와 헛된 부귀에 종노릇하게 해 주는, 말솜씨 부리는 기술"에 불과했습니다(1.9.14.). 비록 당시 그의 생각과 언어로는 명료화할 수 없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 이상의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하려는 '무언가'가 말 그대로 무엇인지는 그가 16살에 카르타고로 유학길에 올랐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우면서 여러 책들을 보던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Hortensius)』를 접하게 됩니다(3.4.7.).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이 자신의 "성정을 바꾸어 놓았고", "자신의 기도가 당신을 향하도록 변화시켰다"(3.4.7.)라고 진술합니다. 이 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호르텐시우스』는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책을 넘어 내면을 흔들리게 하는 변화를 주는 책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변화가 수사학 이상의 무엇, 나아가 하느님을 지향하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은 무엇을 담고 있는 책이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이 책은 지금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술에서 우리는 이 책의 무엇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호르텐시우스』는 '철학에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책이었습니다(3.4.7.). 『호르텐시우스』에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열화와 같이 사로잡은 말은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움켜잡고, 포옹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3.4.8.). 『호르텐시우스』를 접함으로 인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열망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철학이 추구하는 것, 즉 진리였습니다.

> 오, 진리여, 진리여! 저 사람들이 당신을 외칠 적에, 그렇게도 흔하게 그렇게도 다채롭게, 때로는 소리로만 때로는 많고도 큼직한 책자로 당신을 소리 내어 드러낼 때에, 제 영혼의 골수가 얼마나 당신을 속으로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까! (3.6.10.)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찾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에 대한 진리입니까? 진리는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진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한 진리의 이면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를 통하여 알고 싶은 질문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였던 걸까요?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질문은 그가 『호르텐시우스』를 접하기 이전에 '이미' 아우구스티누스 삶 안에서 잉태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호르텐시우스』를 접하면서 비로소 진리에 대한 탐구, 이른바 '철학적 사고'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가 질문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그 이전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그것을 '철학적인 문제'로 파악하지도, 파악할 수도 없었을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질문은, 추정컨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유달리 날카롭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백』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인 '배서리 사건'입니다.

『고백』 2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남의 밭의 배를 훔친 기억을 꺼냅니다. 그는 으슥한 밤에 한 보따리나 될 정도의 배를 훔쳤는데, 정작 그 배들을 먹지 않고 돼지들에게 줘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먹기 위해서 또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배를 훔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도둑질과 그 죄악을 향유하기 위해서"(2.4.9.) 그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뿐인 악의'(2.4.9.)를 의식합니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입니다(2.5.11.). 그리고 '배서리 사건'에서 제기된 악의 원인에 대한 문제는, 이후 글의 전개를 통하여서도 밝혀지겠지만, 이후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의 핵심으로써 기독교를 만나기 이전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존재와 원인에

대한 의문은 비로소 『호르텐시우스』를 통해 철학을 만나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은 오늘날과 같이 엄격한 논증과 명료한 이해를 요하는 하나의 학문과 동일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은 개인이 가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이었고, 개인은 자신의 '철학'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이끌어나갔습니다(Hadot, 1987). 물론 그렇다고 당시의 철학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철학이 갖는 성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철학은 단순히 논리상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표현되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혜를 찾는 것이었고,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은 설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을 통하여 자신이 변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수사학 교사의 출세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 속에서 끙끙 앓아왔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침잠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정컨대, 이후의 그의 회심과 개종, 그리고 『고백』을 쓰게 만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악은 무엇인가 혹은 악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보다 세련화되어,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가능하고 악의 원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에 '머리를 돌린 것'(3.5.9.)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는 세상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였고, 적어도 그의 가정 특히 모친인 모니카는 열렬한 신자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가 어릴 때부터 열렬히 기독교와 성경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Brown. 2000: 60-62) 그러나 그 당시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사학을 공부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당시 조악하게 번역된 성경의 문체는 거북했고(3.5.9.), 신은 오로지 선하고 세계는 순선한 신에 대하여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교리는 당시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세상에 보이는 악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년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를 회고하며, "자신의 오만방자함이 성경의 절제된 표현을 놓치고 말았고 제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3.5.9.).

2. '설명'의 추구: 마니교, 아카데미아학파, 신플라톤주의

기독교의 다소 아리송해 보이는 교리와는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목을 끈 것은 당시의 마니교의 교리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니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공공연하게 '악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고, 자신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3.7.12). 이러한 마니교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늘에 찔린 듯 움찔 놀라며 그들에게 교묘하게 설득되고 말았습니다."(3.7.12.)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교리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언뜻 보기에 자연스럽습니다. '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상하는 답은 '악은 A이고 B에서 왔다'라는 식의 직접적이고 간단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에는,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당시에 이해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이 나오지 않으며, 위 질문과 배치되어 보이는 '신은 오직 선하고, 세계는 그러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구절들만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즉 당시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독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2] 반면 마니교는의 '악은 선과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또 하나의 실체이며, 따라서 세계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고 주장은 외견상 더 설득력 있어 보였고 실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들의 설명은 "단순하고 격렬"했습니다(Brown, 2000: 68). 무엇보다도 젊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교리에 설득되었던 점은,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의 교리에서처럼, 선과 악, 그리고 신을 하나의 물질적인 실체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4.15.24.). 신이 모종의 물

2) 적어도, 일례로 당시의 기독교는 작게는 성경 구절에서부터, 크게는 기독교의 주요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공존했습니다(Pelikan, 1071: 101-164)

질적인 실체여야 한다는 생각은 마니교에 대한 지지가 시들었을 때에도 지속되었습니다(5.10.20).

우리는 여기서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 속에 있는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에 떠오른 문제, 즉 '악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가 마니교와 기독교를 평가하는 방식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설명해줄 적합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점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은 점에서 드러납니다.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오히려 마니교에 경도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의 설명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 것에 반하여 마니교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4.10.18). 요약하자면, 그에게 믿음은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시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니교의 악에 대한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마니교를 믿을 수 있었고, 그 반대였기에 그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그의 입장은 '믿기 위해서 안다', '알아야 믿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졌던, 철학에서 배운 '철학적' 태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종교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이론, 다른 사람의 말 등을 믿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순진하거나 미숙한 태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믿음과 지식을 순서가 있거나 대립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지식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지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믿음보다 지식의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지식을 탐구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적' 태도는 단지 마니교와 기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성술에도 흥미를 가졌고(4.3.3-6.), 당시에 "실체와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진리가 담겨있다고 여겨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독파했으며(4.16.28-29.), 지식인이라면 배움이 권장되었던 몇몇 자유교과들도 탐독했습니다(4.16.30.). 그러나 어떤 것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결정적인 해답이 되어주지는 못했으며, 후에 그는 이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4.16.29., 4.16.30),

설명이 미덥지 않은 것은 그가 추종했던 마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니교의 세계관에 끌렸던 아우구스티누스였지만, 마니교의 저서들에 나온 세계의 원리나 설명방식이 그에게 모두 납득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던 마니교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당시 자유교과나 통용되는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무맹랑해 보였습니다. 지식을 믿음보다 우선한 당시의 그답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의구심들이 생겼고 결국 그는 마니교의 적극적 신봉자(electus)에서 물러나 청강자(auditor)에 머물렀습니다(5.6.10.).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오류를 발견했으면서도 그들의 권위를 추종'했습니다(5.5.9.). 그러다가 이러한 찜찜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니교의 대학자라고 일컬어졌던 파우스투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던 카르타고 지방에 왔기 때문입니다(5.6.10.). 아우구스티누스는 파우스투스가 자신이 마니교에 가졌던 몇 가지 의문을 단박에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제가 이따금 만나던 사람들 가운데 저런 문제에 관해 제게서 반박으로 나오던 힐문에 대답이 궁할라치면 저에게 그 인물[파우스투스]을 내세우기 일쑤였고, 그가 도착하여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것이며, 아마도 더 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5.6.10.)

그러나 정작 파우스투스를 만나자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파우스투스는 언변만 유창했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보통 수준의 문법에 불과했으며 자유학예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음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간파했습니다(5.6.11). 아우구스티누스가 품었던 악에 대한 문제(7.2.3.),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마니교의 교리에 있었던 여

러 허점들(5.7.12.)을 파우스투스에게 물어보았지만, 파우스투스는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고 자백할 뿐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무모하게 아는 체 하는 다른 달변가들보다는 나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풀어주기에는 모자랐습니다(5.7.12.). 기대했던 만남이 큰 좌절과 실망으로 그치자, 그 이후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니교에 대한 공부는 시들해지고 맙니다(5.7.13.). 그의 이러한 모습은 앎이 깨지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가 추정한대로, '알아야 믿는다'는 지식을 통한 믿음 추구의 태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마니교의 '민낯'에 실망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5.14.25). 그는 당시의 유명하던 철학 조류인 '아카데미학파'에 경도되었습니다. 당시의 철학은 삶의 방식을 일컫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종교와 철학이 큰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은 주지한 바입니다. 따라서 그가 마니교라는 종교를 떠나 아카데미아학파라는 철학학파에 관심을 보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3] 그들은 "모든 것에 관해서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간주하였고 인간에 의해 여하한 진리도 파악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5.10.19.). 적어도 그 당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카데미아 학파가 다른 나머지보다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5.10.19.). 비록 그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이 물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5.10.20.), 이에 대한 마니교의 설명 방식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5.11.21) 그는 아카데미아 학파의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는 마니교를 떠납니다.

물론 아카데미아 학파를 접한 것만이 그가 마니교를 떠나게 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그를 아카데미아학파가 아니라, 마니교는 더더욱 아니라, 기독교로 이끌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그는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와중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인간적인 모습과 더불어 그의 성경을 우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5.13.23-14.24.). 여기서 우의(aenigma)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으로, 우의적 해석이란 성경의 수수께끼 즉 '성경의 숨은 뜻을 캐내는'(『그리스도교 교양』, 2.16.23.) 해석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숨은 뜻이란, 성경의 문자 이면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당시의 밀라노의 기독교가 가졌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밀라노의 기독교는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8.2.3.).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는, 거칠게 말하자면, 사물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사물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만 사물의 세계의 모든 존재와 질서의 원천이며 사물의 세계에 대해 근본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Brown, 2000: 142).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은 당시에는 유행처럼 퍼진 사상이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그들의 사고는 마치 '우리가 진화론에 영향을 받고 이에 근거한 사고를 하는 것처럼'(Brown, 2000: 140-141) 익숙하고 또 이를 통하여 기독교 교리를 새롭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밝히겠지만, 그가 신플라톤주의를 통하여 깨우친 것은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에서든(6.3.4.) 밀라노에서의 다른 경로의 접촉이든간에(7.9.13.),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의 색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비로소 기독교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비물질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7.20.26.). 기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은, 심지어 신마저 물질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실체를 생각도 못했습니다."(7.1.1.) 따라서 신플라톤주의에서 파생된, 그러나 기독교에서 재음미된 '영적 실체(spiritalis substantia)'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과 대비되는 영적인 것이 있고, 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열어주었습니다.

---

3) 이와 관련된 서술은 그의 다른 책 『행복한 삶(De Beata Vita)』에서도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들[마니교도들]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따지고 나서 그들에게서 아주 탈출하였으며 그 바다를 건넜는데 온갖 바람과 맞서는 사이에 아카데미아 학파가 풍랑 한가운데서 제 배의 키를 붙들어주었습니다."(『행복한 삶』, 1.4.).

2.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 믿음과 지식의 화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와의 조우, 그리고 당시의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가 준 영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 그리고 회심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적 실체를 몰랐을 때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야 그 지식을 통하여 믿음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믿기 위하여 알려고 한 그 동안의 태도와 잘 맞아떨어지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믿음을 결정지을 지식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이러한 해석은 원숙한 경지에 이른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인,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credo, ut intelligam)'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요약되어 있는 이 말에서 믿음은 앎보다 선행하는 반면, 믿음을 (새로운) 지식으로 정당화하는 위와 같은 해석에서는 앎이 믿음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해석은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사상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해석입니다.

둘째, 이러한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기독교로의 회심이 갖는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시킵니다. 위 해석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납득을 한 철학자이지, 무엇인가를 열렬히 믿고 사랑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신앙이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열렬한 찬미로(1.1.1.), 나아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10.20.29.).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러한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 고백에 열성을 가진 자로 되게 만든 그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의 획득, 혹은 앎의 확장 차원의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식을 통한 믿음의 발생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마니교의 교리에 가깝습니다. 기독교는, 모니카의 신실한 행적에서도 드러나듯이(6.2.2.), 다른 무엇보다 신에의 믿음과 경건을 우선하는 반면, 마니교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통하여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믿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와 마니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종교였고 두 종교 모두에 심취한 경험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와 마니교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변화를 열렬히 표현하고자 『고백』을 쓴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를 따르게 된 이유로 저는 『고백』 7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7권에서 자신이 신플라톤주의를 발판으로 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1장(1절-5절, 11-12절)을 언급합니다.

>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 앞에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느님 앞에 계셨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하였다." (7.9.13.)

위 대목을 별 주의 없이 읽는다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이 태초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복음』을 인용하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지만, '세상을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라'는 설명 혹은 주문이 아닙니다.[4] 아우구스티누스가 위 구절을

4) 심지어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새로운 지식도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주어만 바꾼다면, 마니교에서도, 심지어

통해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에는 그것을 성립시키게끔 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에 앞서,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모종의 근거가 있기에 성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인식하든, 무엇을 믿든 간에, 다시 말하여 그러한 판단·인식·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행위들은 판단·인식·믿음이 성립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백』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믿음의 처한 조건 그 자체, 혹은 믿음의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 가변적인 사물들을 두고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고 판단하거나 말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릴 적에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느냐를 탐구하면서 저는 가변적인 저의 지성 위에 진리의 영원, 불변하고 참된 영원을 발견했습니다.. (7.17.23)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생긴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에는 그 자체를 성립하게 한 조건 혹은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 혹은 조건은 외부의 지식을 통한 정당화와는 별도로 믿음이 성립한다는 점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지식이나 그것을 통한 정당화를 통하여 어떤 것을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의 근거는 지식, 심지어 믿음의 내용과 무관하게 믿음이 성립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 무엇으로 설명되는지와 별도로 이미 믿음을 성립시키게 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만약 그것들을 안 믿는다면 현세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는 사실"(6.5.7.)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고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백』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들을 단순히 신에 대한 칭송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가 깨우친 핵심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히려 그 빛이 저를 만들었으므로 제 위였고 그 빛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제가 그 아래였습니다."(7.10.16.)는 말이 '믿어야 할' 지식으로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믿음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조명한 말임을 알 수 있고, "당신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니 존재합니다."(7.10.16.)는 말 또한 같은 취지로, 단순히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자 근거가 신임을 가리켜 보이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고색창연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눈 깜박할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에 도달하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짐을 저는 직관하였습니다. (7.17.23.)

요컨대 기독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믿음 나아가 모든 존재를 성립하게 한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태도는 이전의 믿기 위하여 설명을 요하던 '철학적' 태도와 구분되는, 외부의 설명 없이 믿음의 근거에 존재하는 무엇을 인정하는 '종교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태도에 이르러서야,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을 믿음으로써 믿게 됩니다. "이 구절의 끝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마치 확신의 빛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듯 의혹의 모든 어둠이 흩어져버렸습니다." (8.12.29.)

3. 악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는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대한 저의 설명은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거꾸로 뒤집는 해석입니다. '알아야 믿는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존의 입장은 지식이 있어야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취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반대로, '믿어야 안다'(『자유의지론』1.2.11.), 나아가 '믿기 위해서 안다'(Topping, 2012: 180)는 점을 고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의 초점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생기게 만든 기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믿음 그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알려면 외부의 지식이 아닌 믿음의 근거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기반이 지식 또는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믿음을 포함한 우리의 존재에는 그것을 성립하게 만든 근거가 있고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5)]

다시 아우구스티누스가 처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끝없이 지식을 열망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제 해석이 옳다면 그것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풀고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악의 문제'였습니다. 마니교는 이에 대하여 이원론적인 접근, 즉 선의 실체와 악의 실체가 있어서 서로 갈등한다는 교리를 내세웠지만, 어떻게 완전한 신이 있다면 그와 별도로 악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이 완전한데도 어떻게 악과 싸우고 힘을 다툴 수 있는지는 그에게도(7.6.7., 7.7.11.), 자신의 친구들에게도(7.2.3.)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새롭게 깨달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기원을 탐구하려는 자신의 접근이 잘못된 방식의 탐구임을 깨닫게 됩니다(7.5.7.). 그것은 신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신이 믿음을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나온 논리적 귀결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선한 신이 만물을 창조하였다면,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7.5.7.). 요컨대 악은 선의 결핍이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3.7.12.). 그러나 이는 '논리적 귀결'일 뿐,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악한 모습들을 목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배서리 사건'에서부터 출발된, 아우구스티누스가 해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년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해답은, '나의 믿음의 존재'에 비추어 악의 기원을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7.7.11.).[6)]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7)]

어떻게 자유의지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의지가 기원을 잊은 채 행사될 경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잘못 행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의 잘못, "자유롭게 지은 죄"(8.10.22.)입니다. 예컨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자명한 사실이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

5) 날카로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1) 믿음을 포함한 우리의 존재를 성립시킨 모종의 근거가 있다'와 '(2) 그 근거는 바로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능력이다' 사이에는 논리적인 필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의 존재에 모종의 근거가 있다고 하여, 그 근거가 가리키는 것이 꼭 (기독교의) 하느님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타당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이 글에서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믿음'과 '지식'(또는 '이성')이기에 생길 수 있는 지적입니다. 추정컨대,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1)과 (2)를 연결해주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믿음'과 '이성'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는 '권위'와 '이성'의 관계입니다(『아카데미아학파 반박』, 3.20.43.). 그러나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6) "제 영혼에 이런 믿음이 살아남아 있고 요지부동하게 강화된 상태에서 저는 악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7) 악의 문제에 자유의지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하나의 설이었을 것입니다(7.3.5.). 적어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서 우리는 위와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우, 심지어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는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것은 틀린 생각을 넘어 불경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론짓습니다. 악은 의지의 전도(轉倒)로, 신이라는 실체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의지의 전도입니다(7.16.22.) 이러한 점에서 자유의지는 악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자, 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그리고 악의 원인에 대한 주장은, 비록 후에 많은 오해와 논의를 낳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통하여 깨달은 사고의 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던 악의 문제는 '새로운 설명의 제시'가 아닌 '믿음의 근거의 조명'을 통하여 해명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을 쓴 이유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III. 종교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

1. 내면의 탐구, 그것을 위한 '고백'

『고백』 1-9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즉 그 전까지의 자신의 삶과 경험을 서술했습니다. 10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달음을 통하여 변하게 된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서술합니다(10.3.4.).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적어도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외부의 지식이 아닌 믿음, 나아가 자기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 이 시도는 신을 알려고 하는 시도일까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음을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이해를 넘는 존재라고 하여 그가 믿음의 근거에 대한 탐구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지식은 신과 맞닿아 있는 우리 존재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 그 중에서도 신과 가장 가까운 우리의 내면입니다.

> 저를 아시는 분이시여,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져 있음과 같이 저를 알고 싶습니다.(10.1.1.)

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앎은 외부의 지식 혹은 그것을 통한 정당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내적 조건들, 다른 말로 하여 나의 내면의 지식입니다.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과 믿음의 기원을 찾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의 기원은 신을 향하며, 우리가 신으로 향하는 단서는 신이 만들어주신 내면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8)]

> 거기서 저는 제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당신의 이끄심으로 저의 내면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신께서 저를 돕는 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7.10.16.)

여기서 우리는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깨달음 이후에 『고백』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

8)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의 지식은 이른바 자기지식(self-knowledge)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은 그가 기독교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씌어진, 『질서론』과 같은 이른바 카시카시움 시절의 저서들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2. 종교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 내면의 길, 그러나 신이 주신 길

우리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고백의 교육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첫째, 고백은 막연한 주절거림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더 알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나'이며, 나만이 나의 마음으로 고백을 행할 수 있습니다(10.1.1.). 이러한 점에서 고백은 능동적인 동시에 주체적인 성격을 띠며, 스스로를 탐구에 몰입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그 탐구를 통해서 진정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독백 혹은 성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탐구를 통해 얻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나아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신에 대한 앎이기에, 그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향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신, 그리고 신 아래의 모든 만물이기에(9.4.10.), 남들과 공유하고 표현할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은 사밀한 것이 아니라 "형제 같은 마음"(10.4.5.)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필묵으로 하는"(10.1.1.) 공적인 성격을 띱니다.

요컨대 고백의 교육적인 성격은 인간은 내면의 이해를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이해는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자,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존재의 근거를 탐구해야 함을 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형식이 고백이라는 점은 이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는 길을 다른 무엇이 아닌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고백은 내 안의 진리를 확인하는 길이자, 나 스스로 진리에 대한 길을 노정하는 길입니다.

고백의 교육적인 성격 아래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견지한, 앎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태도는 앎 나아가 존재의 근거를 캐묻는 종교적인 태도로 변화하면서, 앎의 추구는 외부의 별도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존재 근거로 향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우리의 존재 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종교적인 태도는, 우리가 신에게 다가가고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신이 내려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면의 앎의 추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에 일어난 합일 속에서 교육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면의 앎의 추구, 다른 말로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는 일은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고백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탐구이자,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차 모르는 무언가"(10.5.7.)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의 존재란 인간이 알기에는 너무 거대할지 몰라도, 우리는 신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근거를 탐구하는 것으로 신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신을 경배할 수 있고, 신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저희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 안에 있는 빛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영원한 내면을 보기에 이르면 좋겠습니다.(9,4.10.)

우리는 신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근거가 있음을 알며, 우리가 모르는 그 근거를 파악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밖을 알기 전에 안을 알아야 하며, 사실 진리의 빛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의 내면에, "내면 인간의 빛"(10.6.8.)으로써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내면은 지식의 통로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면은 신앙의 통로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면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배움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철학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만이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종교적인 것은 내면의 앎의 추구와 그것을 통한 배움이라는 교육적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원을 찾는 것은 내면을 통하여 가능하고, 그것은 내면의 자아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용어로 '영혼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대한 앎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품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로 통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을 완전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내 안의 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내면의 앎이 신으로 향하는 최종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임은 분명합니다. 아래의 인용구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분은 먼 곳에 계시지도 않는다. 그 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것들이 존속한다. 그러니 보라, 그분이 어디 계시고 어디서 진리가 빛을 내는가! 마음 가장 안쪽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은 그분한테서 떠나 헤맸다. *탈선한 자들아! 마음으로 돌아가라!* (4.12.18.)

<참고문헌>

- 1차 문헌

Augustine, *Confessiones*. 성염 역(2016).『고백록』. 파주: 경세원.
Contra Academicos. 성염 역(2016).『아카데미아학파 반박』. 서울: 분도출판사.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1998).『자유의지론』. 서울: 분도출판사.
De beata vita. 성염 역(2016).『행복한 삶』. 서울: 분도출판사.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2011).『그리스도교 교양』. 서울: 분도출판사.

- 2차 문헌

Brown, P. (2000). *Augustine of Hippo : a biography*. 정기문 역(2012).『아우구스티누스-격변의 시대, 영혼의 치유와 참된 행복을 찾아 나선 영원한 구도자』.서울: 새물결.

Hadot, P. (1987). *Exercices spirituels et philosophie antique,* 2nd ed., Davidson A. I. (ed.) and Chase. M. (trans.). (1995). Philosophy as a way of life : spiritual exercises from Socrates to Foucault. Oxford ; New York : Blackwell.

Pelikan, J. (1971).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박종숙 역(1995).『고대교회 교리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Topping, R. N. S. (2012). *Happiness and Wisdom : Augustines' Early Theology of Education*. Washington, DC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